

보건소 내원 여자 노인들의 생화학적 영양상태에 관한 연구.

손숙미 · 김문정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최근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의료제도의 개선으로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문제를 야기시킴에 따라 노인들의 영양문제는 증폭될 전망이다. 특히 건강증진법이 발효됨에 따라 만성질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영양증진사업이 보건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건소를 내원하는 여자 노인 108명을 대상으로 질병보유율 및 보건소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이들중 검사에 응한 72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생화학적인 영양상태 판정을 실시하여 노인들이 많이 보유한 영양 문제를 알아보았다. 여자 노인들의 경우 고혈압(33.3%), 당뇨(19.7%), 류머치스관절염(16.7%)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보건소 방문회수의 경우 대상자의 43.0%가 1주일에 1번 정도 방문한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4-5일에 1번 정도 방문한다는 응답이 20.0%였다. 보건소 이용에 있어 만족도를 가격, 서비스, 시설, 집과의 거리 등으로 나누어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살펴보았을 때 가격에 대한 만족도가 4.6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서비스, 집과의 거리, 시설 순으로 나타나 보건소의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대상자들의 RBC, Hb, HCT는 각각 $4.1 \times 10^6/\text{mm}^3$, 12.7g/dl, 37.7%로서 Hb이 12g/dl 미만을 보인 노인이 18.5%, Hct 36% 미만을 보인 노인이 16.7%였다. 특히 평균 RBC, Hct의 경우 연령이 75세 이상된 노인이 65-74세 노인에 비해 낮았다.($p<0.05$) 여자노인들의 평균 Serum ferritin은 88.1ng/ml로서 철분부족을 나타내는 수치인 10-20ng/ml의 범위에 1.9%, 철분결핍에 의한 빈혈 나타내는 수치인 10ng/ml 미만에는 0.9%의 분포를 보여 Hb, Hct에 의한 빈혈 빈도보다 낮았다. 대상자의 혈청 콜레스테롤, LDL-C, TG는 각각 190.0mg/dl, 113.1mg/dl, 150mg/dl로서 콜레스테롤치 220mg/dl 이상을 보인자가 19.4%, TG 170mg/dl 이상을 보인 대상자가 23.2%였다. 공복시의 평균 혈당은 101.7mg/dl로서 정상범위에 있었으며 75세 이상 노인이 65-74세 노인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혈당을 보였고 ($P<0.05$) 공복혈당이 140mg/dl 이상인 노인이 8.3%였다. 평균 혈청칼슘의 경우 9.9mg/dl으로 정상 범위에 속했다.